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문화향기

이미경
사)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 원장

광주공항에 아이들이 설래이는 얼굴로 모여들었다. 제주도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들으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기쁜 마음으로 배웅을 나와 준 서구청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은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 행복한 모습이다.

학교를 그만두고 수학여행을 못 가본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 대명엘리베이터 대표(이미진)의 기부로 제주도 여행이 이루어졌다. 수학여행, 졸업여행,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을 우리 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해 늘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통 큰 기부를 해준 이미진 대표님의 큰 사랑으로 비행기에 오르게 된 것이다. 설레는 마음에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다는 아이들은 평소에 잘 알지 못한 친구들과도 잘 소통하면서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즐겁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라고 배웅하면서 공항을 나서는데 정말 마음이 찡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준 이미진 대표님께 감사하는 마음, 더 빨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섞이면서도 마치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것처럼 행복했다.

수학여행, 졸업여행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거리가 아닌가 싶다. 유독 멀미를 심하게 하는 필자는 먼 길 여행이 달갑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초죽음이 되게 속이 뒤집혀도 밤새 깔깔거리고 얼굴에 매직으로 그림이 그려졌어도 웃어넘기던 즐거웠던 기억은 사는 내내 친구들과 나누는 정담의 한 페이지다. 그렇게 소중한 추억과 꿈을 찾아 떠난 제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이 진심을 담아 서구청장님과 이미진 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였다. 학교밖센터에서 쿠키를 직접 굽고, 롤링페이퍼를 만들고, 제주도에서 체험활동으로 만든 조명기구를 감사의 선물로 준비하였다. 2박 3일의 여정을 담은 동영상까지 직접 만들어서 서구청장실에서 전달식을 하였다. 작은 기부로 너무 큰 사랑을 받는다고 한사코 나타내기를 거부하는 대표님은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정리한다고 하였다. 정말 놀랐다. 전문기업인으로 전쟁 같은 사업을 하는 가운데 타인을 위한 마음을 쓰는 멋진 기업가였다.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생겼다. 내내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돌아와서 감사의 문자를 보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는 문자였는데 놀랍게도 대표님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제안해 주었다. 미리 중흥골드스파에도 연락을 취해서 티켓까지 준비해주고 간식비까지 챙겨주었다. 부족한 예산으로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 줄 수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더할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였다.

세상은 좋은 사람이 더 많아서 아름다운 거라고 자신 있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최근에는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자립을 준비하는 아이에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서 보석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JNT 한희경 대표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해주었다. 대표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내내 아이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도 잘 준비해서 잘 해보겠다고 다짐한다.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사람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것이리라.

법인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자립청소년 키퍼 활성화를 위해 삼성희망디딤돌과 연계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그룹홈, 쉼터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립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방법을 논의하였다. 최고의 기술을 가르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좋은 곳에 취업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

물론 자격증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보다 앞서 아이들의 마음이 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늘 얘기하지만 정말 혼자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 하겠다. 수 많은 천사들의 어깨가 우리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확신하며 진심을 다해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5일(현지시각) 중국 후베이성의 싼샤 댐에서 양쯔강 상류의 홍수에 대비해 9개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서석대

1995년 8월 어느 날, 무라카미 쓰네오 수은 강항 선생 일본연구회장이 선잠 결에 이상한 꿈을 꿨다. 수십여 년 강항 선생을 연구했지만 단 한번 꿈에서조차 만나보지 못했던 강항 선생이 그에게 뭔가를 건네주는 꿈이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 한국인 한 사람이 무라카미를 찾아와 편액 하나를 내밀었다. 1597년부터 1600년까지 3년여 간 일본에서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강항 선생이 1618년까지 영광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써준 것이었다.

강항 선생의 '울림'

'어느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이었다'는 게 무라카미의 회상이다.

편액에 쓰인 글귀는 종오소호(從吾所好). 단 한 번뿐인 인생,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었던 공자의 마음이 담긴 명구다.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던 공자는 나이 쉰을 앞두고 홀연 깨달음을 얻었다. 부와 권세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지만,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는 희망과 도전이다. 임진왜란을 거쳐 정유재란까지 수많은 백성의 고초를 목격했던 강항 선생도 공자의 길을 가고 싶었던 것일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거기에 몰두 하겠다는 선생의 결기가 당당하다.

그러나 편액의 운명은 기구했다. 수백 년 대대로 진주 강씨 한 문중의 사당에 보존됐던 편액은 그 집안의 가세가 기울고 사당이 허물어지면서 1950년 경 사당과 함께 파손됐다. 어쩌면 사라질 뻔한 위기였다. 하지만 편액은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 건너갔고 결국 무라카미에게 전달됐다. "1995년 8월, 한국의 소유자로부터 편액을 받았고 오즈시의 건설업자에게 부탁해 편액을 수리했다. 조상이 소중히 여기던 것을 손괴해 죄송하고 부끄러우니 이름은 공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게 무라카미 회장의 설명이다.

강항 선생의 친필 편액 '종오소호'가 17일 전남도 기념물 28호인 영광 내산서원에 돌아온다. 이낙연 전 총리와 무라카미 회장이 지난 2002년 영광군이 주최한 강항 세미나에서 처음 만난 이후, 20여 년이 넘는 두 사람의 교류가 만든 의미 있는 성과다. 소유자인 무라카미 회장에게 편액을 기증받은 이 전 총리도 이날 기증식에 참석해 강항기념사업회 등과 편액의 보존과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항 선생은 생전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겼다 한다. 지도자로서 역할을 외면했다는 선비의 자책이다. 거짓이 횡행하는 정치권과 도덕이 무너진 지도층이 혹세무민하는 지금, 400여 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선생의 울림이 더욱 클 것 같다. 이용환 논설실장

社 說

전 도민 무상교통 '교통복지' 마중물 되길

김정이 道의원 'J-Pass' 제안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이 16일 383회 임시회에서 '전 도민 무상 교통토큰(J-Pass)' 도입을 제안했다. 도민에게 무료 버스를 제공해 운송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자치단체 또한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 든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인구소멸이 눈앞에 다가 온 지금, 김 의원이 제안한 무상 교통토큰이 전남을 '저탄소 교통복지'의 마중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남의 연도별 시내버스 수송실적은 참담하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통계 편람에 따르면 2016년 8678만 명이던 시내버스 수송실적은 2022년 5811만 명으로 7년여 만에 33% 급감했다. 2022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마을도 전체 6337곳 가운데 543곳으로 2010년에 비해 227곳 늘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남도와 시·군이 매년 여객 운송사에 쏟아 붓는 예산은 500억 원이 넘는다. 공공버스를 위한 예산이 이용률 개선은 뒷전인 채 재정적자만 늘리고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기후위기 시대 무상 대중교통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없어지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교통복지로 이어진다. 많은 주민들이 승용차 대신 버스를 이용할 경우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무작정 노선 손실 보존 등 여객 운송사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먼저 무료 토큰을 지급해 여객 업체의 경영개선을 도와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설득력이 높다.

'저탄소'와 '교통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움직임은 세계적 흐름이다. 완도군이 지난해 전남 최초로 실시한 군내버스 전면 무료 운행은 탑승객이 늘어나는 등 주민과 관광객은 물론이고 버스 업체까지 모두에게 호평을 받는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졌다. 똑같은 예산으로 모두가 혜택받는 보편적 교통복지가 가능하다면 고령화 등으로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전남으로서는 도전해 볼 만한 실험이다.

'진흙탕 싸움' 시의회 원 구성 꼴사납다

교문위원장 3차투표 파행

더불어민주당 독점인 광주시의회가 파행 끝에 제 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제3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명진 의원을 3차 투표 끝에 교육문화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찬성 14표, 무효 6표, 기권 3표다. 명 의원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열린 1, 2차 투표에서 모두 찬성표가 과반인 12표를 넘지 못해 부결되는 수모를 겪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갈등으로 원 구성이 파행 속에 이뤄졌다. 의장 선거 담합과 특정 상임위원회 쏠림 현상 속에 무효와 기권표가 속출하면서 단독 입후보한 일부 상임위원장이 과반 표를 얻지 못해 재선거를 하게 됐다. 상임위 자리를 놓고도 의원간 자리싸움도 이어졌다. 특히 상임위 정원이 6명인 교문위에 11명이 지원했고 갈등 끝에 제비뽑기로 최종 결정을 하는 촌극까지 빚었다. 원 구성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영달, 특권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시당은 '경선 결과를 준수하라'고 경고장을 보냈다. 1당 독점의 목불인견 행태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민주당 의원이 21명으로, 민주당 내부 경선을 통과한 의장단 3명(의장 1명·부의장 2명)과 상임위원장 4명이 단독 출마했다. 이번 후반기 원 구성도 민주당 의원들이 싹쓸이 했다. 결국 피행을 겪은 광주시의회의 후반기 의정활동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민주당 텃밭'이라는 광주의 지역 구도가 유지되면서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원구성을 놓고 보여준 의원들간의 갈등과 감투 쓰기에 연연하는 모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역 주민의 뜻을 수렴해 반영하는 일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시작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다. 원 구성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담합과 자리 나눠 먹기 관행부터 근절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